

“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네
한 가닥 외길, 여러 갈래 길,
또다른 길이.
착한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
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.
다른 영혼들은
이리저리 헤매네,
저 안개 낀 들판 사이를.

길은 열려 있다네, 누구에게나.
높은 길과 낮은 길이.
그대는 골라야 하리,
제 영혼이 가야 할 길을.”

(John Oxenham)